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2월 11일 (제87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잃어버린 곳으로 가라

두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던 엄마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막다른 길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것을 안 엄마는 심한 좌절을 느꼈다. 그 때 큰 아이가 주저앉은 엄마를 흔들며 “엄마, 왔던 길로 다시 가면 되잖아.” 라고 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엄마는 일어나 “맞다, 맞아. 온 길로 다시 가면 되지.” 라고 말했다.

다들 직진형이다. 행여 후진이라도 하면 큰 일 나는 줄 안다. 남들에게 뒤지는 줄 안다. 그러나 때론 U턴도 필요하다. U턴하면서 오던 길을 다시 보면 안 보이고 무심코 지나쳤던 길들이 보이게 된다.

잃은 것을 찾을 때는 출발했던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가정을 잃었는가? 기업을 잃었는가? 직업을 잃었는가? 사랑을 잃었는가? 잃어버린 장소로 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간 나오미, 거기서 갑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 쓰러 과부가 되었다. 그 때 나오미는 10년 만에 처음 있던 곳,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자부인 룯과 결혼시켰고, 후손 다윗을 낳아 그 뿌리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대업을 이룬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곳으로 되돌아가자. 목회자 안 되는가? 처음 개척했을 당시로 돌아가 보라. 직장에서 힘든가? 처음 입사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라. 가정이 깨질 위험에 놓였는가? 가정을 이뤘을 때로 돌아가 보라. 신앙이 다운되었는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웠던 때로 돌아가 보라. 거기에 가면 답이 있다. 원점을 향하여 U턴하면서 잘못 들어선 길을 확인하고 더 나은 길이 있는지도 확인하라. 그러면 목회도, 사업도, 가정도, 신앙도 성공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이다

추계산상집회를 마치고 지난 12월 5일,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는 153운동본부 주관 ‘사랑의 쌀 및 김장 나누기’ 행사가 있었다. 밭에 가서 직접 뽑은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 만드는 일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인천교회 성도들의 수고로 이미 이루어졌고, 이날에는 서울과 인천의 교역자와 뜻있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김장을 버무렸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김장은 빠른 손놀림과 분업화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몇몇은 잘 절여진 배추를 날랐고, 배추속을 넣는 사람, 그것을 김장용 비닐봉투에 넣어 나르는 사람, 비닐봉투에 담긴

곡은 해처럼 빛이 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신다. 산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하신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2:15~17).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산 믿음이며, 자기 배만 채우는 자,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다. 즉 행함이 기준

이 하면 된다. 더 배웠다면 그것으로 나누면 되고, 더 건강하면 그것으로 도움 일이 있다.

다들 사랑이 메말랐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사랑을 나누면 된다. 촛불 하나는 약하지만, 그것이 모이면 엄청난 빛을 발하듯, 작은 사랑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 153구제운동은 총회장 목사님의 사비로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큰일을 이루고 있음을 보지 않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이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



2016 사랑의 쌀, 김장 나누기에 수고하신 서울·인천 교역자와 성도들(12월 5일, 인천예수중심교회)

김치를 153스티커가 붙은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테이핑 하는 사람, 그것을 쌓아놓는 사람, 바닥이 미끄러울까봐 닦고 다니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사람 등으로 손발이 척척 맞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일을 마친 후에 한 박스의 김장과 20kg의 쌀이 수혜자 대표에게 전달되었고, 각 교구 전도사들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시대 목사님은 김장과 쌀을 전달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성도들의 사랑이니 받아달라고 하셨다. 이어 갓 삶은 수육과 김장김치로 맛있는 식사가 이어졌다. 나누는 기쁨으로 모두의 열

이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즉 믿음은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실제적이고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근거로 산 믿음은 영생으로, 죽은 믿음은 영멸로 갈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렇다고 산 믿음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한 것처럼 김치 몇 포기 나누는 일, 현웃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구제에 쓰는 일로도 족하다. 더 가졌다면 더 많

니,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생에 들어가자.

지금 잠시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 주위에 돌아볼 영혼들이 많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많다. 그들을 향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진정 산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얼굴과 옷에 고춧물이 튀겨도 기뻐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행복하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초대형 합지에 배추를 절이고 있다



사랑의 쌀과 김장을 전달하였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애3:46~50)

설마, 설마가 나라를 잡는다

1992년 6월 7일의 잠실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앞두고 청계산에 오르내리며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죽은 아름드리 나무 앞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가 될 때까지 세찬 바람도 맞았을 것이고, 뜨거운 햇볕과 북풍한 설도 겪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작은 딱정벌레로 인해 죽었습니다. “설마~” 하십니까?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만 잡나요? 아닙니다.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교회도 설마에 잡힐 수 있습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외치던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이 순간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설마 나라가 부도가 나겠어?’ 했지만 1997년, 우리나라가 부도 났었고요, 출근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설마~’ 했었습니다. 또 뉴욕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리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세계 2차 대전 말인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에 대해 ‘항복하라’고 사전경고를 합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 때 일본의 반응은 ‘설마 세계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원자폭탄을 투하하겠느냐’며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일로 일본 천황은 즉각 항복하기에 이르고, 일본 국민 약 11만 명이 사망했으며, 반경 3km가 넘는 지역 안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설마’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로 세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저는 어제 설교를 위해 기도하다가 예레미야애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애 3:46~47).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방에 대적들을 두사 이스라엘이 사면초가가 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 때 예레미야는 비탄과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사면초가에 놓였습니까? 느끼십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적의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틈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냐?’ 하겠지만, 그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장담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지금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에 이른 것은 순전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땅 덩어리가 크길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이 나라를 살리고 성장 발전시켜 주신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일삼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 것은 회초리를 들 때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고는 눈물이 시냇물이 되어 흐르듯 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 없는 백성은 국가 있는 개보다 대접을 못 받습니다. 아내 없는 설움, 남편 없고, 자식 없는 설움, 집 없는 설움이 크지만 나라 없는 설움만 하겠습니까? 전쟁은 모든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비참한 것입니다.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그들의 비참함을, 보트피플들을 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 때에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니 폭풍이 잠잠해졌습니

다. 지금 대한민국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구국의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에게 전쟁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위협도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주의 종들이 먼저 일어나 기도에 앞장서야 하며, 의인 열명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설움도 겪었고, 전쟁의 아픔과 양금도 여태껏 안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

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강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만 바라 봐야 합니다. 구국의 길이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최고의 애국애족 하는 길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머리가 가랑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위태로운 시대에 제물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까? 누가 에스더처럼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중심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가졌습니다. 절대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정벌레를 조심해야 합니다. 딱정벌레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는 일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

12:25)고 말씀하셨고, 또한 “다투는 시 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분쟁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꾀계를 알고 우리는 서로 화합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멸하지 않게 됩니다. 국가도, 기업도, 가정도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어부지리 격이 되어, 주변만 좋게 합니다.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그들의 분열과 반목이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고, 파멸로 치닫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거울삼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구국의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 이 나라가 무궁화 삼천리, 십자가 삼천리 화려강산이 되게 합니다. 유난히 진땀물이 많이 끼는 무궁화지만, 기도로 진땀물을 잡아내어 화려하게 꽃피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합니다.

안보 없는 경제성장은 없습니다. 국가를 잃은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 새해 벽두인 1월 2~3일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갖습니다. 주민만이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라고 고백할 것이며,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달라고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요,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나라가 평화통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달라는 기도도 좋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필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국가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어서 속히 안정되고 해결책을 찾도록, 그리고 노예미야 같은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시간관리

해마다 12월이 되면 지나온 시간들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 86,400초의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 시간들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도 없고 누구에게 빌리거나 살 수도 없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실로 소중한 것입니다.

‘Time is money(시간은 돈)’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는 아까워하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주기별로 수립하고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시간을 허비하며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와 계획이 있더라도 점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점검을 통하여 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해가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시간 관리의 기본입니다.

둘째는 계획을 세웠으면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

록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이윤을 남겨 칭찬 받은 종들은 받은 즉시 달려가 장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에 지체하거나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개인의 실적 차가 나는 것은 바로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군은 ‘대충’입니다. 무슨 일에든 대충하지 말고 매사에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넷째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달인이 되어 생산성도 올라가고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투리 시간이란 출퇴근 시간, 식사 후 남는 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 등인데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다 보면 의외로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주신 소중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여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 귀한 열매 풍성히 거두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5:16).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세상을 보는 창 ::

달인(達人)

‘생활의 달인’이라는 TV프로그램이 있다. 필자는 간혹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달인들의 이야기를 시청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전문가요, 이른바 달인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성실한 사람들로 보인다. 자기의 일터에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과 기술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대개 밝은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얼굴과 동작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맛보는 기쁨을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우리들 역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고 숙련하여 높은 경지에 이르는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 국립 음악원 교수인 미하일 칸트바르트는 “만약 내가 어느 정도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음악가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려간다.”고 하였다. 발레리나 강수진은 “더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의 예술 인생은 끝난다.”고도 말했다. 즉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식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없이는 퇴보만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달인들은 숙련도가 높고 손재주가 있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달인이 ‘달’(達)한 것은 어떤 기술이나 재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세운 뜻을 이룬 것이다. 중국어에서 ‘達’(달)이 의미하는 바는 성공이라는 의미보다 ‘뜻을 이룸’을 말한다고 한다. 반대로 窮(궁)이라는 말은 돈이 없어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세우지 못하였거나 ‘뜻이 없음’을 말한다고 한다. 즉 달인의 ‘이룸’은 돈이나 성공이라기보다 ‘뜻’인 것이다. 여러분은 달인인가? 뜻이 빈곤한 자인가?

그렇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신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영적 달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슨 일이든 반복하면 달인이 됨을 알고, 능숙해질 때까지 반복에 반복, 노력에 노력을 가하자.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참회(懺悔)

주여 용서하소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소서 대한민국!

살려주소서 대한민국!

금홍을 베푸소서 대한민국!

울어도 울어도 끝없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손발이 잘리니 움직일 수 없고

잔뿌리 잘리니 기력을 잃었고

성장이 멈추니 가지마저 자릅니다

때늦은 후회 속에 통곡하며 하늘만 바라보니

눈물이 시내가 되어 강물에 이릅니다

주님여 대한민국

바다에 이르기 전 건지소서 도우소서

아~내 조국 대한민국!

갈 길을 알게 하소서

천둥 번개로 무지한 백성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삼키려는 마귀 궤계에서!

아~내 조국 대한민국!

건져주소서 소성케 하소서 평화를 주소서

주님께 참회하며 강청합니다

느헤미야 보내소서

2016년 12월 6일 새벽

朋友 이초석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선한 영향력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편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제는 습관이 돼서 웬만한 거에는 불평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저도 일 년에 몇 번씩 주변 모든 것들에 불만이 생겨서 극도로 부정적이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왜 나만 배려해야 하지? 왜 나만 손해 봐야 하지? 왜 나만 이려고 있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그런 날에는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아지죠.

하루는 정말 하기 싫었던 프로젝트로 혼자 야근을 하는데 다른 팀은 멋지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짜증이 확 치밀었습니다. 내가 소모하는 시간이 아깝고, 나의 재능을 이 판 일에 쏟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모든 일에 회의감이 들고 나만 뒤쳐지는 것 같았지요. 그 다음 날 회사에서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겠다고 했지요. 팀 사람들은 그런 저를 억지로 일으켜 밥을 먹게 하고 커피숍에 가서 수다 타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듣기만 하다가 어느새 같이 수다를 떨고 그러다 보니 오늘 왜 제가 우울한지 얘기하게 되면서 안 좋은 마음들이 조금씩 떨쳐지게 되었지요. 한참 뒤 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너무 우울했는데 지금은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혼자 있었을 계속 더 나쁜 생각만 했을 거 같아요.” 그 뒤로부터 저도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생각해보면 제 성격 중 좋은 점이라 여기는 것들은 타고난 천성이거나 혼자 습득한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받아서 배우게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연일 나쁜 소식들만 가득해서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촛불로 평화를 밝히는 사람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또 다른 노인,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애쓰는 후배, 기분 안 좋은 친구에게

어떻게든 힘이 돼보려는 친구,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행인... 알게 모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론 악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는 사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군대에서 악한 선임에게 당한 괴롭힘을 후임에게는 똑같이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반대로 윗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자기 아랫사람에게 짜증을 내며 푸는 사람,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선한 영향력으로 바꿀 것인가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2017년 1월 2일(월)~3일(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의 02-533-9191

:: 교단소식 ::

진짜 믿음!(REAL FAITH!)



지난 1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동작문화센터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히11:6)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진짜 믿음(REAL FAITH)’라는 주제로 중고등부 찬양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여 이 문화센터를 가득채웠다는데 있다 하겠다.

이 집회를 준비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중고등부 담당 이현승 전도사는 “현 시국이 시끄럽고 세대가 악하여 순수한 중고등부 아이들이 타락의 길로 갈 여지가 있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집회를 배설했다.”고 말했다. 이런 교역자의 마음을 알았는지 집회를 준비함에 있어 교사와 학생들

어른들도 하기 힘든 지하철 전도를 통하여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타를 팔고, 애써 모아왔던 저금통장을 털어서 이 집회에 써달라고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 이런 학생들의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이날 집회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이라 믿는다.

이날 강사로 서신 이시대 목사님은 새신자 친구들을 위해 쉽게 설교하셨다. 목사님은 감직한 인형을 들고 “우리는 이 인형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어느 날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형을 용서해주기 위해 인형에게 ‘내가 준 수건을 쓰면 네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달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게. 그러니 죄를 지으면 수건을 쓰도록 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인형이 어느 날 죄를 짓고 내

수건이 아닌 다른 수건을 쓰고 있다면 나는 이 인형을 용서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인형이 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정하셨습니다. 인형이 우리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설교를 마치시며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셨다.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많은 새신자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고, 목사님은 이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접 기도를 하게 하셨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드린 학생들, 친구들 전도하기에 자존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한 학생들, 찬양으로 전심을 다한 학생들, 이들의 모습에서 ‘진짜 믿음’은 이미 그들에게 역사했음을 보았다. 또, 이들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미래가 기대되며 든든했다.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끌어갈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단에서 나오길 원한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바람이자 소망이 우리 예수중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임하길 기도하며 응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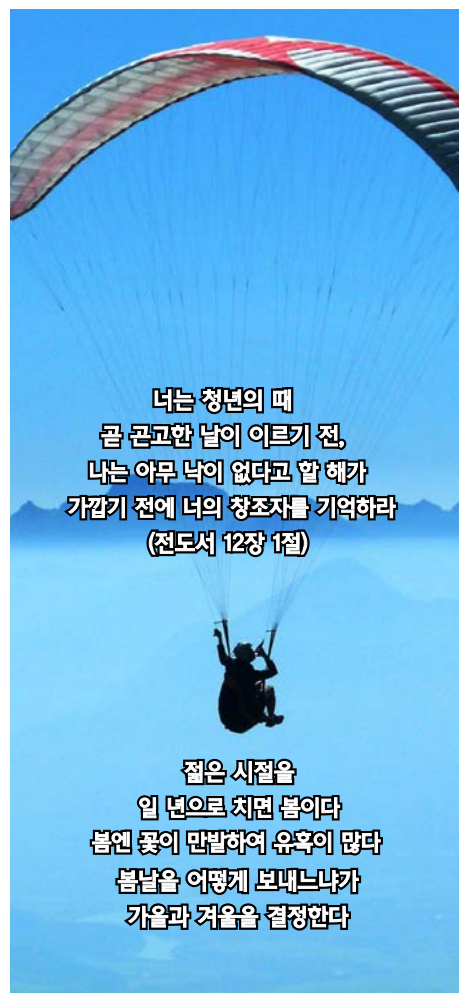
기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해답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를 작곡한 음악가 하이든, 그가 한 예술가의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이 무르익어 갈 무렵 누군가 예술가로서의 고충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고 서로가 해결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어떤 예술가는 고통을 술로 이긴다고 했고, 어떤 자는 친구를 찾아가서 낯두리를 하면 좀 풀린다고 했고, 어떤 자는 하염없이 길을 걷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답도 시원한 답은 아니었다. 그 때 하이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올 때나 마음이 외로울 때나 혹은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 올 때면 나는 마음에 평화를 얻고 찬란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 기도만이 해답이고, 기도만이 살길이다.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꾀계에 풍전등화일 때 모르드개가 에스테에게 명령한 것도 바로 기도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가 한 것은 오직 기도였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욥, 바울..., 우리 주님도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로지 기도하셨다. 우리 목사님도 32년 동안 오직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당하고 있는가? 사는 게 시름털털한가? 나라가 시끄러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라. 거기에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고, 확답이 있다. 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란 없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젊은 시절을
입 년으로 치면 봄이다
봄엔 꽃이 만발하여 유혹이 많다
봄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을과 겨울을 결정한다